소유 넘어 환원의 삶 묻게 해

금강스님의 계율 이야기

⑨ 출가자들의 소유물 – 발우

時二人白世尊言. 今奉獻蜜麨慈愍納受時世尊復作如是念. 今此二人奉獻蜜麨. 當以何器受之. 復作是言過去諸佛如來至眞等正覺. 以何物受食諸佛世尊. 不以手受食也. 時四天王立在左右. 知佛所念. 往至四方. 各各人取一石鉢. 奉上世尊. 白言. 願以此鉢. 受彼賈人麨蜜. 時世尊慈愍故. 卽受四天王鉢. 令合爲一. 受彼賈人麨蜜. 受彼賈人麨蜜已. 以此勸喻. 而開化之. 卽呪願言.

"세존이시여, 저희가 올리는 보리죽과 밀환을 받아 주십시오. 그러면 저희에게 오랫동안 안녕과 행복이 있을 것입니다." 세존께서는 생각하셨다. "여래들은 손으로 음식을 받지 않는다. 무엇으로 보리죽과 밀환을 받을까?" 그때 사천왕이 세존의 생각을 알아차리고 사방에서 돌 발우를 하나씩 가져와 바쳤다. "세존이시여, 이 발우에 보리죽과 밀환을 받으십시오." 세존께서는 새 돌 발우에 음식을 받아 드셨다.

–〈율장〉 '마하박가' –



한국불교 공양의식 발우공양 모습. 발우의 재료는 달라졌어도, 출가자의 식사가 절제와 감사의 마음 위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뜻은 오늘날에도 이어지고 있다.
사진 제공=한국불교문화사업단

가장 많은 대중에게 불교의 스님을 떠올려 보라고 하면 많은 이들이 〈무소유〉의 저자 법정 스님을 말할 것이다. 직접 만나지 못했더라도 글을 통해 그의 삶과 가르침을 접하며 자신의 생활을 돌아본 이들이 많기 때문이다. 〈무소유〉가 전하는 검소함은 출가자에게만 요구되는 덕목이 아니라 소유에 익숙한 우리 모두에게 던지는 질문이기도 하다. 그 영향으로 출가자는 언제나 적은 물건만을 지니고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다.

그러나 시대에 따라 의식주를 꾸리는 방식과 생활에 꼭 필요한 물품은 달라진다. 새로운 생활필수품을 일률적으로 거부하는 것이 곧 검소함이라고 할 수는 없다. 재가자의 보시를 바탕으로 수행하는 출가자가 절제된 삶을 살아야 한다는 원칙은 변함없지만, 무엇을 어떤 형태로 지닐 수 있는가는 그 시대의 환경과 수행 공동체의 생활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중요한 것은 소유물의 수만이 아니라 그것을 대하는 마음과 쓰임이다.

시대가 변하면서 출가자의 생활용품은 달라져도, 평생 지니는 기본 물품으로 여겨지는 것이 있다. 흔히 '삼의일발(三衣一鉢)'이라고 부르는 세 벌의 가사와 한 개의 발우다. 가사는 출가자의 몸을 가리고 위의를 드러내는 옷이며, 발우는 탁발해 음식을 받는 그릇이다. 옷과 음식은 생명을 유지하는 데 없어서는 안 되지만, 출가자는 이를 탐닉의 대상이 아니라 수행을 지속하기 위한 조건으로 받아들인다. 이 가운데 발우는 한 사람의 식기이면서도 보시를 받는 출가자의 삶과 그 보시에 응하는 재가자의 삶을 이어 주는 물건이다. 이번에는 발우가 경전에 어떻게 등장하고, 어떤 재료가 허용됐으며, 오늘날 우리에게 무엇을 일깨우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경전에는 출가자가 '자리에서 일어나 가사를 걸치고 발우를 들고' 길을 나서는 장면이 자주 등장한다. 그만큼 발우는 일상적으로 지녀야 할 필수품이다. 붓다께서 깨달음을 이루기 전 수자타에게 우유죽을 공양받을 때에는 아직 발우를 지니지 않으셨다. 깨달음을 이룬 뒤 두 상인 따뿟싸와 발리까가 보리죽과 밀환을 올리는 이야기에 이르러 발우가 뚜렷하게 등장한다.

붓다께서 '여래는 손으로 음식을 받지 않는다'고 생각하시자 사천왕이 그 뜻을 알고 사방에서 돌로 만든 발우를 하나씩 가져와 바쳤다는 것이다. 앞에 인용한 〈율장〉 '마하박가'의 장면이다. 다른 전승에서는 그 돌을 알라산(頻那山)에서 가져왔다고 설명한다. 음식 한 끼를 받는 장면에 네 개의 발우가 등장한다는 점은, 수행자의 식사가 혼자 마련한 것이 아니라 타인의 공양과 인연에 기대어 이뤄진다는 사실을 돌아보게 한다.

붓다께서는 사천왕에게 돌 발우를 공양받으셨지만, 출가자들에게 허용된 발우의 재료는 따로 정해져 있다. 〈율장〉은 쇠 발우와 질그릇 발우 두 종류를 허용하고, 금·은·보석처럼 값비싼 재료로 만든 발우를 금한다. 수행자가 쓰는 그릇이 부와 장식의 대상이 되면 본래의 목적에서 멀어지기 때문이다. 나무 발우 역시 초기 율장에서는 허용되지 않는다. 다른 수행자들이 사용하던 물건이라는 설명 등은 관련 전승에서 찾아볼 수 있지만, 재료를 금한 이유를 하나로 단정할 필요는 없다. 여기서 눈여겨볼 것은 식사를 위한 기본 물품조차 사치와 과도한 소유로 이어지지 않도록 세심하게 살폈다는 점이다.

출재가 삶 잇는 필수품이자 법 전승 상징
수행자에 타인 공양과 인연 돌아보게 해
재료 제한은 사치·지나친 소유의 경계 뜻
절제·감사 바탕된 출가자 식사의 의미도

佛結戒八種鉢不應畜. 聽比丘用二種鉢. 若瓦若鐵. 而自用石鉢.

부처님께서는 계율을 제정하여 여덟 종류의 발우를 소유하지 못하게 하셨다. 비구들에게는 질그릇 발우와 쇠 발우 두 종류만 허용하셨으나, 당신은 돌 발우를 사용하셨다.

–〈대지도론〉 권 42–

從今不聽畜上諸鉢. 若畜金銀乃至石鉢皆突吉羅. 若畜木鉢偷蘭遮.

지금부터 앞서 언급한 여러 발우의 소유를 허락하지 않는다. 금·은으로 만든 발우에서 돌 발우에 이르기까지 이를 지니면 돌길라(突吉羅, duṣkṛta, 참회가 요구되는 죄)이며, 나무 발우를 지니면 투란차(偷蘭遮, thullaccaya)이다.

– 〈오분율〉 권25 –

붓다께서 돌 발우를 사용하시면서도 제자들에게는 허용하지 않은 대목은 언뜻 모순처럼 보일 수 있다. 원문은 그 차이를 명시하고 있지만, 모든 이유를 하나하나 설명하지는 않는다. 돌 발우를 '진리의 발우'로 보는 상징적 해석, 무겁고 거친 재질에 따른 사용상의 문제, 붓다와 제자들의 지위를 구별하는 뜻 등이 후대의 설명으로 제시돼 왔다. 이러한 해석은 계율 조항 자체와 구분해 읽는 편이 정확하다. 계율에서 직접 확인되는 것은 출가자에게 허용된 두 가지 재료와 금지된 재료의 범위다. 그 기준을 통해 발우가 음식을 담는 데 충분하면서도 지나치게 화려하지 않아야 한다는 생활 원칙을 읽을 수 있다.

오늘날 우리나라에서는 나무로 만든 발우를 많이 사용한다. 나무는 주변에서 구하기 쉬운 재료이고, 옻칠을 하면 오래 쓰면서 관리할 수 있다. 초기 율장의 재료 규정과 현재 한국 불교의 관행이 다른 것은 사실이다. 이를 단순히 어느 한쪽이 옳고 그르다고 말하기보다, 서로 다른 시기와 지역에서 형성된 규정과 실천의 차이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재료는 달라졌어도 출가자의 식사가 절제와 감사의 마음 위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뜻은 오늘날에도 이어진다. 발우는 출가자의 생계를 위한 물품인 동시에 수행과 법의 전승을 상징한다. 스승이 제자에게 발우를 전하는 모습에는 한 끼의 음식을 얻는 일과 가르침을 이어받는 일이 함께 겹쳐 있다.

율장에는 아직 고쳐 쓸 수 있는 발우를 두고 새 발우를 구하는 일을 경계하는 규정도 있다. 발우의 수선 흔적이 다섯 군데에 이르렀는지가 새 발우를 청할 수 있는 기준으로 언급될 만큼, 깨지거나 낡았다고 곧바로 버리지 않도록 한 것이다. 물론 재질에 따라 실제 수선 방법과 사용 가능 여부는 다르다. 핵심은 불편함을 무조건 참으라는 데 있지 않다. 쓸 수 있는 물건을 함부로 바꾸지 않고, 더 이상 쓰기 어려울 때에만 새 물건을 마련하는 절제에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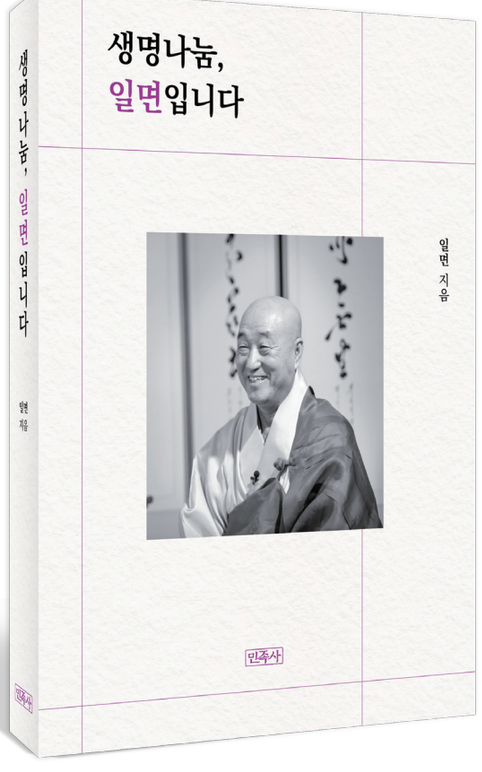
발우에 적용된 이러한 태도는 다른 생활용품을 대할 때에도 생각해 볼 만하다. 발우를 들고 마을을 돌며 탁발하는 모습을 오늘날 우리나라에서는 쉽게 볼 수 없지만, 남방 불교권에서는 여전히 접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는 발우공양이라는 독특한 식사 문화가 이어져 왔다. 발우를 펼치고 음식을 받으며 정해진 순서에 따라 먹는 일은 단지 식사 방법을 배우는 데 그치지 않는다. 음식이 내 앞에 오기까지 들인 사람들의 수고를 생각하고, 필요한 만큼만 받아 남기지 않으며, 함께 먹는 사람을 배려하는 연습이 된다. 재가자에게도 발우 자체보다는 발우공양의 모습이 더 익숙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식사법의 바탕을 이해하려면 먼저 발우가 출가자의 삶에서 어떤 의미를 지녔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

최근 출가자가 줄어들면서 발우공양을 직접 배우고 실천할 기회가 예전만큼 많지 않을 수 있다. 그럼에도 발우가 전하는 뜻은 사찰 안에만 머물지 않는다. 지나치게 많이 담지 않고, 받은 음식을 아껴 먹으며, 그릇을 깨끗이 돌보고 오래 사용하는 일은 누구나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다. 오늘날 환경오염과 음식물 쓰레기를 걱정하는 우리에게도 이 태도는 구체적인 삶의 지침이 된다. 발우공양을 단순히 '친환경적인 식사법'으로만 설명하면 수행의 의미가 좁아질 수 있지만, 검소함과 감사가 자원을 아끼는 행동으로 이어진다는 점 또한 놓칠 수 없다. 발우 한 그릇은 무엇을 얼마나 소유할 것인가뿐 아니라, 받은 것을 어떤 마음으로 쓰고 다시 세상에 돌려줄 것인가를 묻게 한다.

금강 스님
해인총림율학승가대학원
대학원장 직무대행



한 생을 돌아보니, 모두가 은혜였습니다
덤으로 얻은 생명에서 나눔의 길로, 수행과 자비로 채운 80년의 여정



"이제야 알 것 같습니다.
제가 만났던 수많은 사람이 모두 부처님이었음을"



『생명나눔, 일면입니다』

2000년 1월 8일,
죽음의 문턱에서 간 이식으로 두 번째 삶을 얻은 일면 스님.
스님은 그날 이후의 삶을 '덤으로 얻은 생'이라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에 보답하는 길로 생명나눔의 삶을 걸었습니다

일면 지음 | 352쪽 | 17,500원

교보문고 바로가기

도서출판민족사 | 02-732-2402 | www.minjoksa.org